

1. 만정제 춘향가_옥중가(獄中歌) 중(中) 춘하추동(동풍가)

[창조] 그때여 춘향(春香) 모친(母親)은 동네 여러 부인들께 붙들리어 집으로 돌아갈 제, 춘향은 옥방(獄房)으¹⁾ 홀로 앉아, 저의 모친 울음소리 차차차차 멀어지니 옥방으 더진²⁾ 듯이 홀로 앉아,

[진양조] 옥방 형상을 살펴보니 앞문에는 살³⁾만 남고 뒷벽에는 외(穢)⁴⁾만 남아 바람은 우루루루 살 쏜 닷⁵⁾이 들어분다. “내 죄가 무삼⁶⁾ 죄고? 국곡(國穀)⁷⁾ 투식(偷食)⁸⁾을 허였는가? 살인(殺人) 죄인(罪人)인가? 음양(陰陽)⁹⁾ 작죄(作罪)¹⁰⁾ 진¹¹⁾ 일 없이 엄형(嚴刑)¹²⁾ 중치(重治)¹³⁾ 항쇄(項鎖)¹⁴⁾ 족쇄(足鎖)¹⁵⁾의 옥방 엄수(嚴囚)¹⁶⁾ 웬일인가?” 옥사(欲死) 옥사 분(憤/忿)현¹⁷⁾ 마음 머리도 탕탕 부딪치며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을 망부사(望夫詞)로 울음을 운다. “동풍(東風)¹⁸⁾이 눈을 녹여 가지가지 꽃이 피고 작작(灼灼)허구나,¹⁹⁾ 두견화(杜鵑花)는 나부²⁰⁾를 보고서 웃는 모양²¹⁾ 반갑고도 아름답구나. 놀과 함끄 보드라는 말이나 꾀꼬리는 북²²⁾이 되야 유상세지(柳上細枝) 늘어진 디 구십춘광(九十春光)²³⁾ 짜는 소리 아름답고 슬프도다. 놀과 함께 듣고 보며 놀과 같이 탐화(探花)를 헐거나 잎이 지고 서리 치니 구추(九秋) 단풍(丹楓) 시절(時節)인가? 낙목한천(落木寒天)²⁴⁾ 찬바람으 홀로 피는 저 국화(菊花)는 능상고절(凌霜高節)²⁵⁾ 그 아닌가? 먹은 맘이 가득허여 북풍(北風)이 단을 열어 백설(白雪)은 펄펄 휘날릴 제 설중(雪中)의 푸른 솔은 천고(千古) 절개(節概)를 지키어 있고 아미(蛾眉)²⁶⁾의 한매화(寒梅

1) 으 : ‘에’의 전복 방언. 『전라북도 방언사전』 해당 항목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97fae58e7614b8a96c5cf51c98e3c33>) 참고.

2) 더진 : ‘던진’의 함경 방언.

3) 살 : 창문이나 연(鳶), 부채, 바퀴 따위의 뼈대가 되는 부분.

4) 외(穢) :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 댓가지, 수수깡, 싸리 잡목 따위를 가로세로로 엮는다.

5) 닷 : 돛. ‘돛’의 옛말.

6) 무삼 : ‘무슨’의 거제, 부산, 울산 지역어. 『고향말여행.com』 해당 항목 참고.

7) 국곡(國穀) : 국가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

8) 투식(偷食) : 공금이나 공곡(公穀)을 도둑질하여 먹다.

9) 음양(陰陽) : 남녀의 성(性)에 관한 이치.

10) 작죄(作罪) : 죄를 짓다. 또는 그 죄.

11) 진 : 죄를 저지른.

12) 엄형(嚴刑) : 엄하게 형벌하다. 또는 그런 형벌.

13) 중치(重治) : 엄중히 다스리다.

14) 항쇄(項鎖) :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우고 비너장을 질렀다.

15) 족쇄(足鎖) :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쇠사슬.

16) 엄수(嚴囚) : 달아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가두다.

17) 분(憤/忿)현 : 분(憤/忿)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한.

18) 동풍(東風) : 봄철에 불어오는 바람.

19) 작작(灼灼)허구나 : 작작(灼灼)하구나. 꽃이 핀 모양이 몹시 화려하고 찬란하구나.

20) 나부 : ‘나비’의 강원, 경남, 전남 방언.

21) 모양 : ‘모양’의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제주, 충남, 황해 방언.

22) 북 :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베를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 모양으로 생겼다.

23) 구십춘광(九十春光) : 봄의 석 달 동안.

24) 낙목한천(落木寒天) :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또는 그런 계절.

25) 능상고절(凌霜孤節) : 서리를 능가하는 고절(孤節).

花²⁷)는 미인(美人) 태(態)²⁸)를 띄었구나! 단오장춘²⁹)은 연년(年年)이 푸르렀고 추포³⁰) 혼백(魂魄)³¹)은 설은 마음을 자어내어 공산(空山)³²)의 만수음³³)의 피가 나도록 슬피 울어 임의 귀에다 들리고저. 상사일념(相思一念)³⁴)으로 모진 간장 불이 붙어 피골(皮骨)³⁵)이 상연(相連)³⁶)이라, 낮이면 피꼬리 밤이면 두견성(杜鵑聲)은 서로 불러서 화답(和答)을 허니 꿈도 빌어 볼 수 없구나! 임이 그리워 어찌자는 말이냐?” 아무도 모르게 자탄을 한다.

2. 김세종제 춘향가_옥중가 중 춘하추동(동풍가), 『춘향가 67장(장재백 소리책)』, 배연형 엮음,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48쪽 참고

[말노] 이러쳐로 세월을 보닐 썩의 망부스가 되야졌다.

[진양조] “춘하추동 스시절의 허송세월 다 보닐 제, ㅎ 동풍이 눈을 녹이여 가지 ” ” 꽃시 핀이, 작 ” 한 뒤견화는 나부를 보고서 웃난 거동 반갑고도 설거위라. 놀과 함쓰 듯고 보리. 꽃시 지고 입피 핀이 녹음방 초 시절이라. 쇠소리난 북이 되야 유상세지 느러진디 구십춘광 쓰는 소리 아름답고 실푸도다. 놀과 함그 듯고 보리. 입피 지고 설이 친이 구췌단풍 시절리라. 낙목한천 찬 바람의 홀노 피난 저 국화난 오상고절 노난 ” ㅈ시 먹금무미 가득ㅎ고, 북풍이 달을 여러서 빅설은 펄 ” 훗날일 제, 설중의 푸른 솔은 천고절을 직켜 잇꼬, 아미여 찬 미화난 미인티를 썩엿난디, 푸른 솔은 입과 갓꼬, 한 미화난 날과 갓치, 보난 것과 듯난 거시 슈심싱각 썩이로다. 어와 ” ” 가련 ” ” 이 무삼 인연인가. 인연이 극중ㅎ면 이별 잇게 삼겨씨라. 단옥창춘은 연 ” 이 푸루렀고, 초포혼백은 설연 마음 즈어닌이, 부러닌이 한습이요, 석어닌이 눈 물리라. 눈물 묘와 세우 되고, 한습 묘와 청풍 된이, 청풍은 모라다가 임의 초불을 부러 싣고, 세우는 너가 담어다가 임의 금침 썩리고저, 불건니 썩리건이 집피 든 잠 썩우고저. 공산의 뒤견 되야 이화월빅 삼경 밤의 피를 너여 슬피 울어 임의 귀여 들니고저. 삼춘의 호접되야 [분] 봄 당ㅎ면 도라와서 핑기 썩츠 논일다가, 향기 무든 두 날기로 임의 옷세 썩리고저. 오동츄야 발근 저 달은 임 게신 곳 날과 함피 보즈군나. 달이 말이 업신이 담 ” 이 홀노 안저 무정세월양유파[無情歲月若流波]³⁷)난 날노 두고 일음이라. 익고 ” ” 너 신세야.” 즈진[自盡]ㅎ여 잠이 든이,

26) 아미(蛾眉) :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미인의 눈썹을 이른다.

27) 한매화(寒梅花) : 한매(寒梅, 겨울에 피는 매화).

28) 태(態) :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29) 단오장춘 : ‘단목단초(斷木斷草)’의 변형인 듯하다. 참고로, 「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에서는 “단목단초난 열연이 푸루엿고 촉조혼백 서룬 마음 즈어닌이”(김진영·김현주 외 편, 『춘향전 전집』 10, 박이정출판사, 2001, 239쪽)로 이 부분을 쓰고 있다.

30) 추포 : 촉조(蜀鳥). 두견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꼬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31) 혼백(魂魄) :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32) 공산(空山) : 사람이 없는 산중.

33) 만수음 : ‘만수음(萬愁音, 온갖 시름의 소리)’인 듯하다.

34) 상사일념(相思一念) : 서로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이르는 말.

35) 피골(皮骨) : 살가죽과 뼈를 통틀어 이르는 말.

36) 상연(相連) : 서로 잇닿다. 또는 잇대어 붙다.

37) 무정세월양유파[無情歲月若流波] : 무정세월약유파(無情歲月若流波).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구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비유하는 시구(詩句)이다. 『노주선생문집권지이(蘆洲先生文集卷之二)』 시(詩)에서 “무정세월약유파(無情歲月若流波) 왕일무비가석일(往日無非可惜日, 지난날 모두 몹시 아쉬운 날이 아닌 것이 없다)”을 차용(借用)한 듯하다.